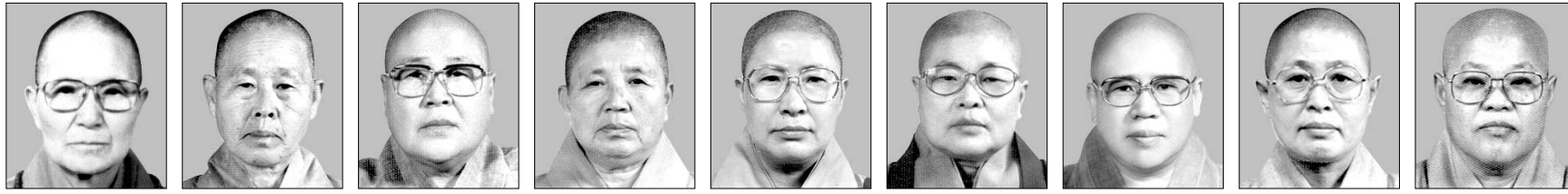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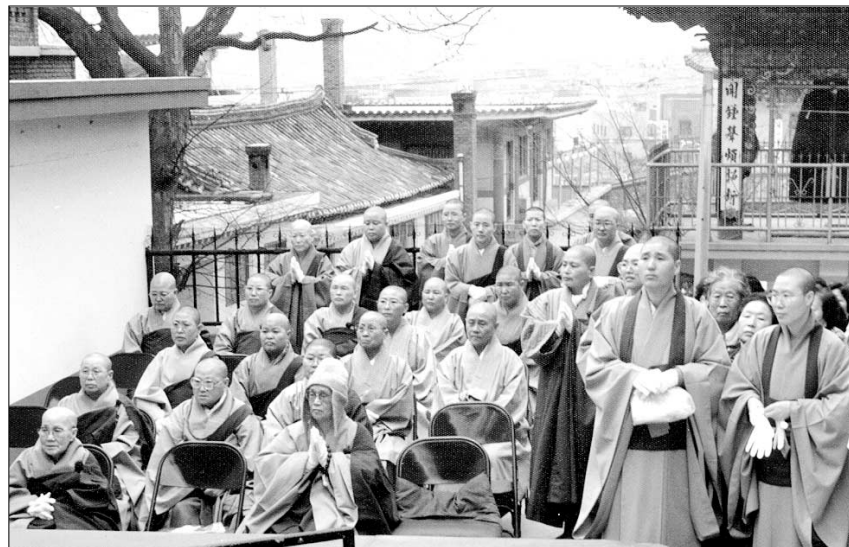
'비구니 종단' 보문종 이끄는 스님들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 보문종에 항상 따라 붙는 수석이다. 보문종은 1972년 최초의 출가비구니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를 종조로 창종된 종단이다. 보문종이 창종된 시기는 불교 역사에서도 격변의 시대였다. 통합 종단을 둘러싸고 비구승과 대처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많은 사찰들이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소외 이웃·새싹 불자와 자비세상 열어가요



1971년 금관 스님과 은영 스님은 비구니 도량인 보문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을 설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비구니와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비구니 스님들이 보문종을 창종했다. 보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깊은 뜻을 받들어 수행하고, 그 변화신(變化身)인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구제하신다는 자비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중지로 삼고 있다. 그래서 1971년부터 30여년간 불우노인의 거처인 시자원을 건립해 경로 사업을 실시했고 1987년 은영유치원 설립, 1994년 은영어린이집 설립해 교육과 복지에 매진해 왔다.



1972년 창종된 보문종은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으로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사진은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은영 스님 추모비 제막식 때 참석한 보문종 스님들.

사찰분규 격랑 속 1972년 창종 국내 34개·해외 4개 사찰 운영

보문종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금관 스님과 은영 스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 두 스님은 모두 입적했고 현재는 해안 스님 등 보문종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 34개 사찰, 해외 4개 사찰 등 총 38개의 말사를 거느리며 비구니 종단의 위세를 넓혀가고 있다. 종단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정 해안 스님은 1912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927년 전주 정혜사에서 영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32년 내장사에서 한영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1939년 원통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석남사 등 전국 비구니 선방에서 수십 안거를 마친 수좌 출신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종단내의 가장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다. 원로원장 해일 스님은 1945년 정혜사 강

원을 수료하고 완산선원에서 40여년간 참선수행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종단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와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지금은 전주 정혜사에서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비구니 모인인 우담바라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은영 스님은 은사로 1936년 출가한 원로 법준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비구니 스님의 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난해까지 보문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비구니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해일 스님과 함께 완산선원에서 30 하인거를 성만한 해월 스님도 종단의 원로로 중요 종책이나 기타 종단 행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비구니 수행체계 확립에도 많은 원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종단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중 스님은 내원사, 해인사, 석남사 등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으로 최근 서울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월거너 무료 양로 시설 시자원에서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1981년 총무원 교무부장을 시작으로 20여년간 종단 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한국종단협의회 참여 등 대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종단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무부장 법수 스님, 교무부장 진일 스님, 재무부장 금주 스님도 법중 스님을 도와 종단의 재정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교육, 수행 분야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복지 분야의 총무부원을 맡아주고 있다. 종회의장 지환 스님은 군산 흥천사에 주석하며 10여년간 군산역에서 무료 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 복지 전문가. 지난 1987년 반야 유치원을 설립해 불교적 소양을 가진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스님은 종단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종회를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하는 등 종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계행이 청정하기로 유명한 덕현 스님은 호계원장 소임을 맡으며 종단 내 300여 종도들

의 종중진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구니 계율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 '비구니 우버리'로 통한다. 재가불자의 계율에도 관심이 많은 스님은 종단내에서 보살계 법회 등을 주도하며 계율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이사장 대인 스님의 활동도 빼 놓을 수 없다. 1955년 보문사에서 일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81년부터 89년까지 총무원 재무부장의 소임을 맡으며 재정 관리에 대한 중무 감각을 키워왔다. 1997년부터는 종단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으며 삼보 정재를 보호하는 '신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묘관 스님은 종단의 원로이자 총보사 보문

양로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복지·교육사업에 힘쏟아

사 주지로 활동하며 현재의 보문사 사격을 이루는데 일조하고 있다. 1942년 출가한 스님은 잠시 전주 정혜사에서 참선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평생보 보문사에서 주석하며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은영 스님을 도와 선원인 선불장, 불교회관 동원정사, 만불전, 석굴암 등의 불사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보문사에서 운영하는 은영유치원과 은영어린이집의 재정적인 후원자로 불교의 새싹을 키우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문종은 양로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수탁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과 하나된 종단으로 인지를 굳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풍경소리' 지원, 보문역 만남의 광장 개소 등 많은 지원을 한 지혜포 교교에도 전력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2> 창일 스님

禪敎 견비... 70년 수행 전념

"어린 시절 모셨던 스님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게을리 할 수가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궁핍한 시절이었지만 엄격히 계율을 지키며 수행에 매진할 정도로 근기가 수승하셨지. 아직도 그 스님들을 마음속의 사표로 삼고 있어요."



서울 약수동 미타사 칠성각 창일(昌一) 스님은 70년 이상 절집에서 살면서 수행에 전념해 왔지만 아직도 시종했던 큰스님들에 비하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해 하신다. 그러나 스님의 주름진 얼굴과 겸손한 말투에서 세수 80이 넘는 수행자의 깊은 수행력을 느낄 수 있었다.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난 창일 스님은 6살 어린 나이에 미타사에서 계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어린 시절 절집의 생활이 재미있었다고 회상한다. 공양간에서 밥 짓는 일부터 예불을 올리는 일까지 모두가 힘들었지만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고 한다. 재미있고 신이 나는 일은 오래 기억되는 법. 스님은 아직도 어린 시절 은사 스님에게 전수받은 사찰 음식 만드는 법, 전통 법배의 식 등을 아직도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

스님의 상좌인 성연 스님은 "아직도 화엄경, 금강경 등 다수의 경전을 외우시고 사찰 중무와 관련된 기관의 전화번호를 모두 암기할 정도"라며 "산중의 사찰에서도 옛 것을 많이 잃어버린 요즘 우리 스님은 '살아있는 전통 문화 전수자'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1945년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만공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1959년부터 10년간 함천 해인사 관음암, 홍제암에서 감원(監院)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소임을 맡으며 중무 행정을 경험했다. 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지관 스님에게 사사를 받으며 교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불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해인사 삼선암 선방 등에서 10년동안 참선에 전념하기도 했다.

이후 스님은 1968년 양산 상복면 소토리에 성림사를 창건했고, 1979년부터 현재까지 미타사 칠성각에 주석하며 미타사 중수에

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창일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 부처 받은 사람이 너무 크다고 토로하신다. 그래서 상좌들에게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

10여명의 상좌 모두를 젊은 시절부터 전통 강원에 보내 훌륭한 스님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었고 강원 졸업 후에는 일반 대학에 진학시켜 배움의 기회를 넓혀 주었다. 만 상좌인 성림사 주지 성우 스님이 문학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만에 유학한 성관 스님이 의정부에서 포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성연 스님은 미타유치원 원장으로 은사 스님의 내리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성우 스님은 "스님이 상좌들에게 현대식 교육을 시킨 것은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지식을 습득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흥포하라는 뜻"이라며 "스님은 불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생 불자들에게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귀띔한다. 김두식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물 배달해 드림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국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진국대사님 어머니의 묘소와 더불어 진국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국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망해사·흥복사·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전주 군산 간 벚꽃길따라 100리, 윤달 삼사순례 오십시오.

오시는 길

-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계방면으로 10분 거리
-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계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 (063) 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 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